톱 여배우 3인방 신작으로 안방 공략

'태혜지'가 돌아온다. 톱배우 김태희와 송혜교, 전지현이 각각 드라마 '마당 있는 집'과 '자백의 대가', '북극성'을 차기작으로 택했다. 뉴시스·스포츠동아DB

김태희·송혜교 '스릴러' 전지현 '첩보멜로'

김태희 첫 스릴러 '마당이 있는 집' 촬영 마쳐
송혜교, '더 글로리' 이어 '자백의 대가' 출연
전지현은 '북극성'서 액션신, 강동원과 호흡

'태혜지', 여배우의 상징으로 꼽히는 톱스타 김태희(43), 송혜교(42), 전지현(42)이 일제히 차기작을 정하고 돌아온다. 화려한 외모를 앞세워 2000년대 대표 여배우로 자리매김한 이들은 저마다 한류스타 반열에 놀라운 흥행 파워를 자랑하고 있다. 40대에 접어든 최근 동시에 신작 준비에 돌입하면서 안방극장 안팎이 뜨거운 관심을 끌어내고 있다.

●다작·변신·액션…3인3색 키워드

김태희는 최근 tvN 드라마 '마당이 있는 집'의 촬영을 모두 마쳤다. 극중 가정주부 역을 맡은 그는 남편을 살인자로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느끼는 불안과 혼란을 그린다. 김태희가 스릴러 장르에 도전하는 것은 처음이다. 가정폭력을 당하는 이웃집 여자는 임지연이, 김태희의 남편을 김성오가 각각 맡아 연말 방송할 예정이다.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로 글로벌 히트를 친 송혜교는 쉬지 않고 '자백의 대가'에 출연한다. 극중 뜻밖의 살인사건에 휘말린 미술교사로서 미스터리한 인물인 한소희와 엮이는 과정을 담을 예정이다. JTBC '괴물' 등의 심나연 PD를 비롯한 제작진은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초 촬영을 시작할 방침이다.

2021년 tvN '지리산' 이후 차기작을 고심하던 전지현도 '북극성'(가제)에 출연한다. 첩보 멜로 장르의 8부작 드라마에는 스파이의 세계를 주제로 해 다수의 액션 장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화 '헤어질 결심', tvN '작은 아씨들' 등을 집필한 정서경 작가가 대본을 쓰고, 강동원이 함께 출연해 내년 촬영에 돌입한다.

●여성서사 주역 한자리에

이들의 복귀 배경에는 과거에 비해 여성 주연 드라마들이 활발하게 제작되고 있는 흐름이 작용했다. 28일 한 드라마 제작사 관계자는 "여성 캐릭터를 전면에 내세운 이야기가 방송가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장르와 로맨스에 국한되지 않고, 스릴러나 정치물 등으로 확대되는 추세"라고 밝혔다.

세 사람이 저마다 새로운 이미지나 장르를 선보인다는 점에서도 시청자 기대가 높다.

공희정 드라마평론가는 "이들은 앞서 '여성서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왔다"면서 "그만큼 대중의 신뢰가 높아 이들이 새롭게 선보일 이미지나 드라마적 메시지에 기대가 쏠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블랙핑크

'노는 물'이 다른 블랙핑크

마크롱 여사 자선 콘서트 이어 美 국빈 만찬 무대 초청

'노는 물이 다르다.'

걸그룹 블랙핑크가 4월 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국빈 만찬' 무대에 초대돼 전 세계 팬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이번 행사는 윤 대통령이 다음 달 26일 12년 만에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하면서 이루어졌다.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는 국빈 만찬은 최고 예우로 통상 의장대 사열을 비롯한 공식 환영식, 공연을 포함한 대통령 만찬, 고위급 환영·환송, 각종 문화행사 등이 진행된다.

특히 질 바이든 여사가 블랙핑크와 미국 팝스타 레이디 가가의 협연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블랙핑크와 레이디 가가는 뉴욕 카네기홀에서 '한미 동맹 70년 기념'을 주제로 공연을 조율 중이다.

둘은 이미 2020년 레이디 가가의 6집 수록곡 '사워 캔디'(sour candy)를 협업해 당시 미국 빌보드 '핫 100'에 오르는 등 전 세계 차트를 점령했다.

28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관련 제안을 받고 현재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빈 만찬 무대가 예정된 다음 달 말 블랙핑크는 멕시코 멕시코시티에 있는 대규모 스타디움 '포로 솔'(FORO SOL)에서 공연한다. 멕시코 공연과 국빈 관련 공연은 함께 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한편 블랙핑크는 앞서 1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부인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가 주최한 자선 콘서트에 참석해 화제를 모았다. 마크롱 여사는 블랙핑크의 팬으로 유명하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슬램덩크' 예매율 1위 탈환…일본도 놀란 인기

개봉 석달째…관객수 428만명 돌파
내달 5일부터 아이맥스로 확대 상영
日매체들 "한정판 굿즈샵 인파 몰려"

올해 개봉작 중 최고 흥행 기록을 쓴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 '더 퍼스트 슬램덩크'의 인기가 꺾일 줄 모른다. 팬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아이맥스 확대 상영을 확정하고, 예매율 1위까지 탈환했다. 이 같은 영화의 인기에 일본까지 놀란 눈치다.

28일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1월 4일 개봉한 '더 퍼스트 슬램덩크'(슬램덩크)는 개봉 석 달째인 현재 박스오피스 3위 자리를 지키며 전날까지 428만 관객을 모았다.

팬들의 열화와 같은 요청에 따라 영화는 이례적으로 개봉 14주차인 4월 5일부터 아이맥스로 확대 상영한다. 특히 이를 통해 20일 만에 300만 관객을 돌파하며 순위를 위협하고 있는 또 다른 일본 애니메이션 '스즈메의 문단속'과 격차를 벌린다는 계획이다.

'더 퍼스트 슬램덩크'가 장기 흥행을 이어가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사진제공 | NEW

딱 일주일만 진행하는 특별 상영의 예매가 22일 오픈하자 624석 규모의 CGV용산아이파크몰점 등 주요 아이맥스관이 순식간에 매진됐다. 곧바로 실시간 예매율 1위에 등극하며, '스즈메의 문단속' 등을 제치고 현재까지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아이맥스 확대 상영뿐만 아니라 4월 초 '슬램덩크 페스티벌'을 열어 팬들을 끌어 모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일본 성우와 OST를 부른 밴드 텐피트(10-FEET)도 한국을 찾는다.

4월 2일 서울 일부 극장에서 나카무라 슈고, 카사마 쥰 등 일본 성우들과 한국 더빙판에 참여한 강수진, 엄상현 등 한국 성우들은 무대인사와 GV(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하고, 텐피트는 메인 테마곡인 '제Zero감'을 직접 선보이는 라이브 이벤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슬램덩크'를 향한 식지 않은 인기에 일본 매체들도 주목하고 있다. 영화 전문 매체 시네마투데이는 1990년대 일본만큼이나 뜨거웠던 원작 만화의 인기를 언급하며 "당시 한국은 일본 대중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기 때문에 강백호·송태섭 등 캐릭터의 이름이 현지화 됐다. 지금은 (현지화 된 이름의)캐릭터를 더빙한 성우가 무대 인사를 진행할 만큼 인기가 좋다"고 보도했다.

이어 "한국에서 취미나 흥미 있는 만화나 캐릭터에 돈을 아끼지 않는 '키덜트'(키즈와 어덜트의 합성어)가 뜨고 있다"며 "재판된 원작 만화가 100만부 넘게 팔렸고 한정판 MD상품을 취급하는 굿즈샵에 연일 수많은 한국 키덜트들이 몰렸다"고 보도했다.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처벌 수위에 쏠린 시선

12시간 경찰 조사…구속 영장 신청 검토
檢 출신 마약통 등 초호화 변호인단 선임

마약 투약 혐의를 받은 배우 유아인이 28일 "모든 질타와 법 심판을 달게 받겠다"며 사과했다. 전날 12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어제 경찰 조사 직후 충분치 못한 사죄를 드렸다"며 "불미스러운 일로 저를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신 많은 분들께 큰 실망을 드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죄송하다"고 썼다.

유아인은 27일 마약류관리에대한법률위반(향정) 피의자 신분으로 오전 9시 30분께 서울 마포구 도화동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에서 조사받았다.

그는 이어 "저로 인해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소중한 작업을 함께한 분들께 사죄의 마음을 전한다"며 "수많은 동료 여러분과 관계자분들께 피해를 드려 죄송하다. 제가 가져야 할 책임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아인은 대마, 프로포폴, 코카인, 케타민 등 마약류 4종을 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이 이번 조사를 토대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인 가운데 유아인의 처벌 수위 등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유아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데다 마약 유통이나 매매 등에 개입하지 않은 단순 투약인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고 있다.

다만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에 대해 한 현직 변호사는 28일 스포츠동아에 "의료목적임을 입증하는 게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유아인 측은 프로포폴 투약과 관련해 "피부질환을 앓는 유아인이 바늘 공포증 때문에 수면마취를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아인은 경찰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전관 변호인들을 선임했다. 그 가운데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의 박성진 변호사는 27년간 검사로 활동하면서 마약 사건을 다수 처리해 검찰 내에서 '마약통'으로 불린다. 2013년 배우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등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사건 수사도 맡았다. 이 외에도 국내 최대 로펌 출신의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유아인의 차기작 3편은 차질을 빚게 됐다. 넷플릭스는 '승부'와 '종말의 바보'의 연내 개봉을 포기하고 공개시기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고 '하이파이브'의 극장 개봉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승미 기자

연예뉴스 HOT 3

지민, 스포티파이 '데일리 톱 송 글로벌' 1위

그룹 방탄소년단의 글로벌 인기가 식지 않고 있다. 28일 소속사 빅히트뮤직에 따르면 멤버 지민이 발표한 첫 솔로 음반 타이틀곡 '라이크 크레이지'가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의 '데일리 톱 송 글로벌' 차트 1위에 올랐다. 같은 날 방탄소년단은 미국 '아이하트라디오 뮤직 어워드' 시상식에서 지난해 6월 발매한 앤솔러지 앨범 '프루프'의 타이틀곡 '옛 투 컴'으로 '베스트 뮤직비디오', '베스트 팬 아미' 부문을 수상했다. 또 국제음반산업협회가 지난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앨범을 집계한 '글로벌 앨범 세일즈' 차트에서 '프루프'를 2위에 올려놓았다.

특정인 밀어주기 의혹 '불타는 트롯맨' 후폭풍

특정 출연자 밀어주기 의혹에 휩싸인 MBN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 '불타는 트롯맨'이 후폭풍을 맞고 있다. 28일 제작진은 "프로그램 섭외 과정에서 특정 인물을 내정하거나 순위를 보장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제작진이 학폭 논란으로 하차한 황영웅 등 일부 참가자를 내정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유튜버에 대해서도 "일면식조차 없고, 당사자가 발언 논란 여지를 인지한 후 즉시 영상을 삭제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비슷한 의혹이 수차례 제기되자 이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편파적인 방송으로 보일 수 있다"면서 제작진에 의견 진술을 의결했다.

데뷔 11주년 엑소, 4년4개월만에 완전체 팬미팅

그룹 엑소가 4년 4개월 만에 '완전체'로 팬들 앞에 선다. 28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엑소는 데뷔 11주년을 맞아 '2023 엑소 팬미팅-엑소 클락'을 4월 8일과 9일 양일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개최한다. 이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2018년 12월 정규 5집 리패키지 '러브 샷' 활동 이후 처음이다. 소속사는 "히트곡의 콘셉트를 접목시킨 다양한 코너들로 팬들과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 안에 그룹 활동도 재개할 예정이다.

편집 | 한민규 기자 stopspe@donga.com